

동북권

• 동북권 소비경기지수는 전년동월대비 5.1% 감소, 전월에 비해 내림세 심화

- 전년동월대비 -5.1% = 소매업의 기여도 -3.6%p + 숙박·음식점업의 기여도 -1.5%p
(각 업종별 기여도 = 각 업종별 기여율 × 소비경기지수 증감률, ※ 관련설명은 후술참조)

• 전년동월대비 소매업 6.1% 감소, 숙박·음식점업 3.7% 감소

- 소매업은 문화·오락·여가의 호황 불구, 종합소매업의 부진 및 가전제품업의 소비침체로 감소폭 확대
 - 7월 소비증가 업종은 문화·오락·여가, 음식료품·담배, 무점포소매
 - 7월 소비감소 업종은 가전제품·정보통신, 의복·섬유·신발, 종합소매
- 숙박·음식점업은 숙박업의 감소 전환과 음식점업의 소비부진으로 내림폭 확대
 - 7월 소비증가 업종은 없음
 - 7월 소비감소 업종은 숙박업, 음식점업, 주점·커피전문점업

